

2023. 9. 6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

공공개발사업담당관

신윤철

2133-9435

수변복합개발팀장

김범준

2133-9456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10쪽

관련 누리집

<https://www.youtube.com/c/seoullive>

여의도공원 도심문화공원 재편의 시작,

[가칭]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대시민 포럼 개최

- 9월 8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(가칭)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전 대시민 포럼 개최
-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국내외 전문가 5팀이 제안한 디자인 작품설명 및 질의응답
- 서울시 누리집 통한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 참여...서울시 공식 유튜브 생중계

- ‘(가칭)제2세종문화회관’이 여의도공원·한강과 어우러져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된다. 국내외 건축가들이 여의도공원 및 한강일대를 직접 답사하며 구상한 ‘(가칭)제2세종문화회관’의 디자인공모 대시민 포럼이 9월 8일(금) 오후 3시 30분,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.
- 앞서 시는 서울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과 수변랜드마크를 만들기위해 ‘(가칭)제2세종문화회관 기획 디자인 공모’를 진행하였다. 이후 심사를 거쳐 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고, 선정된 작품을 오는 8일 대시민 포럼에서 공개한다.

- 공개되는 선정작품은 ▲정영균 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” ▲Jean-Pierre Dürig “Durig AG” ▲오호근 “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” ▲Patrik Schumacher “Zaha Hadid Architects” ▲박형일 “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” 총 5작품이다.
 - 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”는 두 개의 공연장을 관통하는 데크를 통해 여의도 공원과 한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지붕 아래 작은 규모로 일상속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제안했다.
 - “Durig AG”은 여의도공원의 자연을 보존하고 한강 방향의 연결을 강화 하였으며, 건축물의 틀을 배경으로 공원과 공공기능이 전면에 들어나는 새로운 랜드마크 제안했다.
 - “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”는 여의도의 숲과 한강을 향해 모두 열린 공연장으로, 공중에 띄어진 대지를 모든 시민이 경험할 수 있는 수평적 랜드마크로 제안했다.
 - “Zaha Hadid Architects”는 건축물과 공원대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생태공원-공연장-여의도공원-한강공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면서, 24시간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수변-공원 랜드마크를 제안했다.
 - “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”는 한강과 여의도공원 사이를 타원형 고리 모양으로 연결하여,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통합을 상징화하였다.
- 서울시는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단계별로 타당성조사(LIMAC),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. 선정된 5명(팀)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지명 설계공모를 실시해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.

- 포럼에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 (<https://forms.gle/hiurUSKoMax4jnZo7>)하거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. 포럼의 전 과정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(<https://www.youtube.com/@seoulive>)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. 모바일로도 편리한 시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,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다.

-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질 ‘(가칭)제2세종문화회관’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며 “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 위상에 맞는 새로운 한강 수변 랜드마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. 1. 기획 디자인공모 시민 공개포럼 포스터
2. 기획 디자인공모 시민 공개포럼 개요. 끝.



여의도 공원

(가칭)

제2세종문화회관

디자인공모 대시민 포럼



(주)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+ MELIKE ALTINSIK + (주)메이비에스



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프로 원박 디자인비 + (주)비이원



Meonim Architects



Zaha Hadid Architects + (주)주원종합건축사사무소



DURIG AG + (주)신원엔지니어링

일시 | 2023.09.08 (금) 15:30 - 17:40

장소 |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

발표자

박형일 |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

오호근 |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

정영균 |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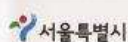
Patrik Schumacher | Zaha Hadid Architects

Jean-Pierre Durig | DURIG AG



사전 등록기간 | 공고일 - 09월 06일 (수) 17:00

본 행사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. (QR코드 참조)



□ 개최개요

- 일 시 : 2023. 9. 8.(금) 15:30 ~ 17:30
- 장 소 : 신청사 8층 다목적홀 ※ 온/오프라인 동시 진행
- 주 제 : 여의도공원 문화공원 재편의 시작 “제2세종문화회관 건립”
- 구 성 : 개회식, 시상식, 심사평, 작품 설명회, 질의응답 등
- 참석대상 : 서울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(시민, 전문가, 공무원 등)
- 참여방법 : 현장 및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참여

□ 포럼 진행순서

일 정		내 용	비 고	
개회 및 세션1 (45')	15:30~15:33	3'	개회선언, 일정(순서) 안내, 발표자 소개	사회자 : 유채린MC
	15:33~15:36	3'	총괄건축가 말씀	총괄건축가(강병근)
	15:36~15:39	3'	심사위원회 심사 총평	심사위원장(구자훈)
	15:39~15:51	12'	① 밀라케 아티니시	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
	15:51~16:03	12'	② 정영균	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
	16:03~16:15	12'	③ Guillermo Durig	DURIG AG
	16:15~16:25	10'	휴식	
세션2 (45')	16:25~16:37	12'	④ 오호근	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
	16:37~16:49	12'	⑤ 비비아나 무세라토	Zaha Hadid Architects
	16:49~17:10	21'	질의응답(시민-전문가)	진행: 총괄건축가
시상식 (30')	17:10~17:12	02'	시상식 시작 알림, 내빈 소개	사회자 : 유채린MC
	17:12~17:15	03'	인사말씀 (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의 미래가치)	시장님
	17:15~17:18	03'	축사 -1	서울시의회 의장
	17:18~17:20	02'	축사 -2	영등포구 구청장
	17:20~17:40	20'	시상 및 기념촬영	시장님, 선정작 5팀, 내빈
	17:40		종합마무리	사회자 : 유채린 아나운서

※ 포럼 진행 순서는 진행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- ① 정영균 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”은 두 개의 공연장을 관통하는 데크를 통해 여의도 공원과 한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지붕 아래 작은 규모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제안



○ 작품 설명

- 공공성의 확장을 위해 전통건축의 처마아래 공간과 마당을 혼합하여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 활동들이 통합되어 소통하는 장소 제공
- 수변과 공원으로 연결되는 동선의 입체적 연결을 위해 데크를 활용
공원과 한강과의 중간에 서로를 연결하면서 중심이 되도록 계획



- ② Jean-Pierre Dürig “Durig AG”은 여의도공원의 자연을 보존하고 한강 방향의 연결을 강화하였으며, 건축물의 틀을 배경으로 공원과 공공기능이 전면에 들어나는 새로운 랜드마크 제안



○ 작품 설명

- 대부분 지하 배치되는 건축물은 2개의 지상 날개를 가지며, 한강과 공원 사이를 열어 한강을 향하는 시각적 개방성 높임으로서 공공 공간과 녹지 구현
- 공공 공간은 입체적으로 확장, 지하 공간과 두 날개의 옥상 공공 테라스로 조성하며 지상의 빈 공간은 주요 출입구로 활용
- 공원의 기존 높이와 자연 지형을 고려하여 보행자/자전거 이용자에게 최적의 접근성 제공
- 공연시간표와 관계없이 활성화하여 시민 일상에 부가가치 제공



- ③ 오희근 “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”는 여의도의 숲과 한강을 향해 모두 열린 공연장으로, 공중에 띄어진 대지를 모든 시민이 경험할 수 있는 수평적 랜드마크로 제안



○ 작품 설명

- 여의도의 수직적 풍경 사이에 대지를 공중에 띄운 수평적 랜드마크로, 한강을 따라가는 풍경 곳곳에서 일상의 눈높이로 서울을 기억하게 될 새로운 시민의 상징으로 제안
- 여의도의 숲과 한강공원을 자연의 풍경 그대로 이어주는 열린 공연장으로, 대공연장은 한강을 향해 열리고, 중공연장은 여의도공원으로 열리며, 공중의 대지는 도시의 모든 방향으로 열린 자유로운 시민의 장소로 제안



- ④ Patrik Schumacher “Zaha Hadid Architects”는 건축물과 공원 대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생태공원-공연장-여의도공원-한강공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면서, 24시간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수변-공원 랜드마크를 제안



○ 작품 설명

- 한강과 여의도공원 양방향으로 열린 문화예술공간을 통해 기존의 단절된 공원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안
- 최첨단 문화공연예술센터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예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감상과 체험이 가능한 고유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
- 녹색섬이라고 불렸던 여의도공원을 공연장의 루프탑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며 공원을 확장하고 공원과 한강의 뷰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



- ⑤ 박형일 “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”는 한강과 여의도공원 사이를 타원형 고리 모양으로 연결하여,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통합을 상징화 함



○ 작품 설명

-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문화경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, 한강과 여의도 공원의 자연스러운 시각적 연결과 원활한 동선을 고려하여 역동적인 문화 중심지로서 다채로운 문화적 체험이 가능 하도록 하였음
- 대공연장과 중극장에는 리허설실, 레스토랑, 카페 등이 한강을 향하고, 전망 테라스와 타원형 고리 모양의 보행교에서는 한강과 도심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도심 속 색다른 여행을 선사함
- 방문객들은 분산 배치된 문화시설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며, 들어 올린 광장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환경을 즐길 수 있음

